

제4절 국내외 기술 개발 현황에서의 연구결과 위치

□ 기술전무 ① 기술의존 ② 기술자립 ③기술선도

	R&D 전		R&D 후	
	현황	지표	현황	지표
설계품질검증기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설계자의 설계품질 수준의 편차가 큼 - 객관적인 설계품질의 기준이 부재하고 확보의 한계 - 설계품질 검토에 대한 평가방법 미비로 품질저하 - 품질저하로 인한 재작업 증대로 업무효율 저하 - 녹색건축물 인증 및 평가 작업의 비효율 	□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설계 품질, 설계정보 활용 및 협업 업무 효율 극대화를 통한 설계 생산성 향상 - 설계품질 향상으로 업무효율 극대 - 체계적인 설계품질 관리 가능 - 설계품질 상향평준화로 글로벌 설계경쟁력 향상 - 설계품질 상향으로 공정 공사비 증가요인 사전제거 - 녹색 건축물 인증 절차 간소화를 통한 소요 시간 및 비용 절감 	③
법규요건검증기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BIM 데이터 품질 편차가 크므로 사전 품질 인증을 통해 신뢰성 향상이 필요 - 수작업에 의존한 도면 검토로 인허가에 대한 업무효율이 저하됨 - 인허가 소요시간 감축을 위한 자동화 시스템 필요 - 국가적 차원에서 세움터를 통해 수집되는 BIM정보가 비효율적으로 활용 	□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법규요건 자동화 검토를 통한 건축행정 업무효율 및 BIM 데이터 품질 확보를 통한 업무 생산성 증대 - 법규요건 검증 기술 세움터 탑재를 통한 인허가 절차 자동화 및 간소화 	②
설계-인허가 협업제출 수행 기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분야 간 정보 호환성 저하로 협업 효율성 저하 - 인허가 단계 업무 경제성 저하와 의사결정지원체계 부재 - 비효율적인 협업기능 제공에 따른 협업효과 저하 - 단계별 협업을 위한 국내 실정에 맞는 기준 및 표준 부재로 인해, BIM정보의 누락 및 비효율적 재생성 업무가 증가 - 공공기관에서 BIM정보를 제출받을 수 있는 제도가 미비하여, 현실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기존의 방식 고수 불가피 - 국내 실정과 맞지 않는 비효율적인 협업기능 제공에 따른 협업효과 저하 - 각종 인허가 단계에서 BIM정보가 재활용되지 못하고 주체 간 의사결정지원체계 부재 	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국내실무 실정에 맞는 건축설계 핵심 기술 보급 및 민간 고도화 유도를 통한 민간 중복투자 방지 - 설계단계의 정보를 인허가-시공 활용으로 정보 재입력 방지 및 업무 효율 증대 - BIM기반 정보공유 및 협업 환경 조성 	②